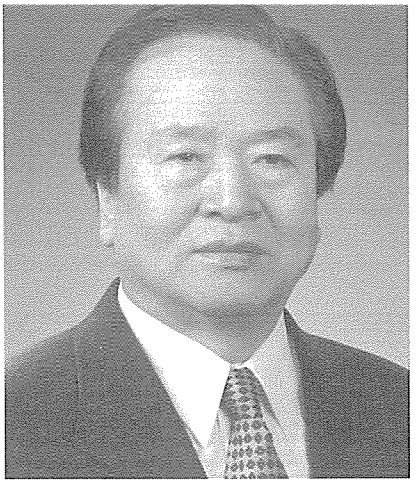


99년 3월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이사회를 특집으로 다룬바 있는 본지는 이번에 그중 과학기술관련 3개연구회의 이사장을 만나 각 연구회 출범과 관련된 그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기초기술연구회 蔡永福 이사장

연구 전념토록 자율성 보장

기초기술연구회의 채영복 신임 이사장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고급 두뇌들이 창의와 열정을 갖고 연구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으로서 생각하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합이사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구회 출범의 의의는 첫째로 정부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배재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고급 두뇌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연구조직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연구효율을 제고시키는 일입니다. 연구회 내의 연구소들간에 또는 연구회간의 울타리를 낮추고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한 기능은 심층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도 구축을 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 기초기술연구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우선적으로 설정하신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방향과 발전방향을 기획하고 기능정비와 조정,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소관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주된 역할과 기능이 되겠지요.

연구회가 출범한지 이제 한달 남짓합니다. 대략적인 목표를 말씀드린다면 연구회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무리없이 잘 이루어내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소들이 한 차원 높은 그런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 기초기술연구회에 속하는 출연연구기관은 어떤 기관들입니까

기초기술연구회에는 KIST와 새로 독립법인이 되는 생명공학연구소, 기초과학지원연구소와 한국천문연구원 등 4개의 연구기관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 연구소들은 우리나라 정부 출연(연)중에서 기초기술 쪽으로 가깝게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소들입니다.

■ 과거에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동안 연구원들이 주무부처의 간섭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회는 연구원들에 의한 연구원 자치제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연구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 연구회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나 방안의 마련과 이를 통한 생산성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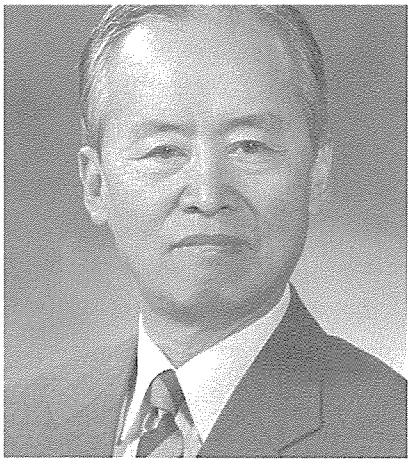
■ 연구비의 집행문제 등 산하 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Council on Competitiveness가 마련한 Innovation Index에 의하면 1995년에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이 1999년엔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3위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2005년엔 미국은 일본,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에 이어 6위에 머물게 될 것이란 경고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연구비의 규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극명하게 설명하여 주는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의 연구회 출범도 이런 시각에서 보아주었으면 하고 또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ST

송해영〈본지 객원기자〉



산업기술연구회
朴圭泰 이사장

평가위 구성해 협동 연구

산업기술연구회 박규태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 및 연구기능 조정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토록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연합이사회의 형태로 새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합이사회 출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 1월29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주무부처별로 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해 온 것을 국무총리가 총괄하여 관리·감독토록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연구기관들을 주무부처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여건을 조성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기술연구회에 속하게 되는 연구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또 산업기술연구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그간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7개 연구기관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가 속해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회의 역할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소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들은 결론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기능으로 집약된다고 봅니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9년 기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8% 정도만 정부예산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외부 수탁연구를 수주하여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형적으로는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의견도 있으나 반면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하기보다는 연구과제 수주에 보다 더 많은 정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부지원 인건비의 비중을 높이도록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평가를 철저히 하여 연구생산성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 연구소간, 연구팀간의 유기적 관계형성은 물론 연구기능 조정 등의 역할도 매우 필요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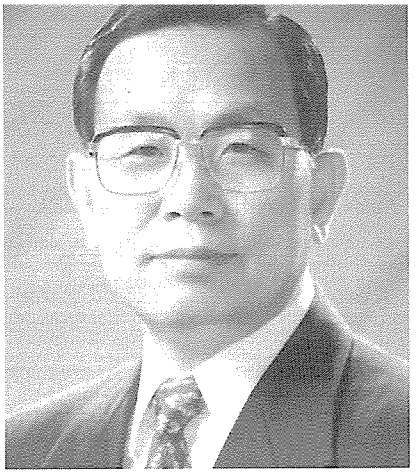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협동연구 및 연구기능 조정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또한 이사장, 이사, 소관 연구기관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문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기관이 이러한 기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고 산하 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연구회 체제의 출범은 정부부처의 개입을 배제하고 연구기관들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부합되도록 관리·감독을 할 것이며, 모든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ST

송해영〈본지 객원기자〉



공공기술연구회 朴炳權 이사장

성과·운영 평가시스템 구축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신임 이사장은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공공기술분야 정부 출연기관들의 성과 및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술연구회가 새로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공공기술연구회를 포함하여 출연연구기관 연합이사회체제의 시작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합이사회의 출범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 및 운영체제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출연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공기술연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구회는 정부 출연기관들이 해당 기관 본연의 목표 및 역할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회가 갖는 기능은 크게 네가지로 지적해볼 수 있습니다.

즉, 공공기술분야 및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획의 기능,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에 대한 조정 및 정비 기능,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의 기능,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산하 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 기관들이 국가의 정책목표에 따른 연구활동을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방식이 아니라 성과관리에 기반한 기획 및 지도 활동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출연연구기관이 임무에 맞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우선,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과관리는 연구과제의 선정, 과제수행, 개발결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연구활동의 전과정이 담당자의 자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술연구회의 우선적인 목표는 공공기술분야 정부 출연기관들의 성과 및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 수행에 있어서는 공공기술분야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설정된 목표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철저한 목표관리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술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은 어떤 곳들입니까.

공공기술연구회에는 총 9개의 연구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주로 국가의 거대과학연구, 자원 및 에너지 분야, 공공 및 기반기술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소에서의 연구성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기술, 또한 연구성과가 특정한 사적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공공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역할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과학기술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 각 연구기관, 연구팀간의 유기적 관계형성은 물론 연구기능 조정 등의 역할도 매우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각 기관들, 혹은 연구주체들의 임무 및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들 기능간의 종합조정,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국가의 과학기술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ST

송해영〈본지 객원기자〉